

# “불탑 조성은 곧 여래를 보는 것이니라”

## 탑의 진화

### ④ 미얀마의 불탑 (2) 바간의 불탑



세계 3대 불교유적지의 하나인 바간의 불탑들.

만달레이 서남쪽에 소재한 바간(Bagan)은 한 때 약 450만개 이상의 불탑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고려 말에 몽고족인 원나라에 의하여 전 국토가 황폐했듯이 불탑신앙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바간도 몽고군의 말발굽에 짓밟혀 지금은 약 2,000여기의 불탑만이 한적한 시골의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캄보디아의 앙코르왓, 인도네시아의 보로보두루와 더불어 세계 3대 불교유적지로 칭송 받는 바간의 불탑(사진1)들은 그 규모와 수량 면에서 신앙적 가치뿐 아니라 예술사적, 건축사적으로도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대단한 불사는 오로지 숭고한 불심만이 가능한 것이며, 불심의 연원은 조탑의 공덕에 대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전의 가르침을 실천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불설조탑공덕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실 때, 많은 보살들과 하늘의 왕들이 함께 모시고 있었다. 그때에 대법천왕, 나리연천(那羅延天), 대자계천(大自在天) 그리고 다섯 건달바왕이 각기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께 게 탑을 조성하는 방법과 그 공덕이 얼마나 큰가를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만일 현재의 이 하늘 무리들이나 미래 세상의 일체중생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탑을 세우면,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마친 후에 청정한 세계에 태어나고, 거기에서 수명이 다하면 5정거천(五淨居天: 불환과를 증득한 성인이 나는 하늘. 무연천, 무열천, 선현천, 선전천, 색구경천의 다섯 하늘)에 태어나서 모든 하늘과 더불어 평등하게 된다.” 라고 설하시며, 표찰(表刹)탑 정상부에 세운 당간(幢竿)과 윤개(輪蓋)의 크기에 있어서는 하늘에 이르거나 대천세계를 덮을 수 있도록 크게 하던 바를크기나 대추 나뭇잎과 같이 적게 하던 그 공덕은 똑같다고 말씀하신다.

또한 그 탑 안에는 부처님의 사리나 머리털, 치아, 수염, 손톱, 발톱을 봉안할 것이며, 그것이 없으면 최소한 사구계(四句偈)만이라도 탑 속에 봉안하면 그 사람의 공덕은 범천과 같다고 설하시며, 만일 어떤 중생이 이러한 인연의 뜻을 깨달아 불탑을 조성하면, 곧 여래를 보는 것이다. <대정신수대장경> 16권 801쪽 상단) 라고 하여 전 세계의 모든 불교인들은 시대를 넘나들며 크고 작은 다양하고도 많은 불탑을 조성하는 이유가 되었다. 바로 바간이란 불교성지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호 부터는 2회에 걸쳐 현존하는 바간의 수 천 개의 불탑 중 몇 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 1) 쉐지곤(Shwe Zigon)불탑

쉐지곤은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석가모니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봉안하기 위하여 조성된 불탑이다. <사진2> 이 쉐지곤 불탑의 조형성은 미얀마의 수많은 불탑의 모델이 되었으며, 아노리타(1044-1077) 왕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미얀마 전통 민속신앙의 37명의 낫(nat:정령)이 안치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쉐지곤이란 돌에 새겨진 문자에 의하면, ‘승리의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불심이 깊었던 아노리타 왕과 쩌시타 왕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그 이후 1557년 바인나웅 왕이 탑에 황금색을 칠하고 1768년 신희신 왕이 티(hti: 불탑 정상에 우산모양)를 다시 조성하여 오늘의 모습을 하고 있다.

불탑의 구조는 사각의 기단위에 종 모양의 탑신을 하고 있는데, 각 기단 중앙에는 탑에 오르는 계단이 하나씩 있으며, 기단에는 부처님의 전생담을 조각한 장식판이 붙어 있다. 3층 기단 각 모서리에는 쉐지곤 탑을 축소한 모양을 조성하였으며, 계단 밑에는 ‘마눗띠하’라고 불리는 상을 조성해 놓았다. 이 마눗띠하는 사람의 상체 하나에 사자의 하체 둘을 합한 것

#### 바간, 과거 450만개 불탑 조성

#### 몽고군에 의해 2000개만 남아

#### 신앙적·예술적·건축적 불가사의

#### 조탑 공덕에 대한 가르침 결과로

#### 숭고한 불심만이 할 수 있는 불사

#### 쉐지곤...미얀마 불탑의 모델

#### ‘아난다 불탑’ 아난다존자와 관계없어

로 다리가 여섯 개이며 마음의 평온과 안정감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기단 위에는 8각형의 단이 있어 상부의 원형 탑신을 사각의 기단과 연결하는 자연스런 중간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탑신은 연꽃잎으로 장식하여 마치 연화좌에 부처님을 모신 느낌을 주고 있다. 이 탑의 기단 안에는 작은 법당이 있는데 과거 사불을 모시고 있었다. 이 중에 1102년에 굽타양식으로 조성된 서쪽의 청동불은 원손은 설법인을 오른손은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시무의인을 하고 있는 독특한 수인의 불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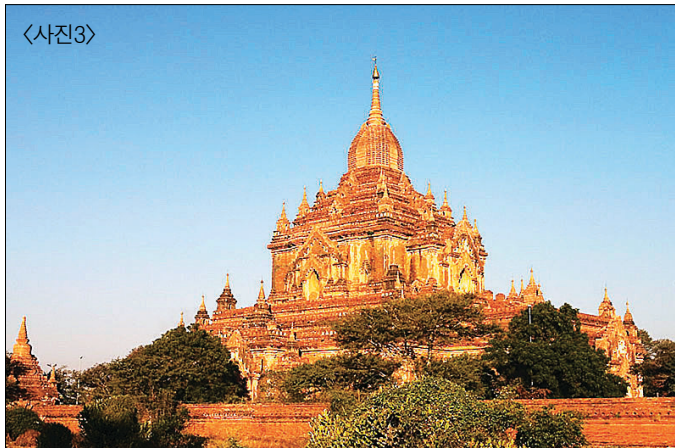
#### 2) 티로민로(Htilominlo)불탑

과거 바간쪽의 나라파티시투 왕에게는 5명의 왕자가 있었다. 그 중에 제일 막내였던 나다웅미아(1211-1234)가 똑똑해서 왕은 그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뚜렷한 명분이 없었다. 고민 끝에 왕은 다섯 명의 왕자를 불러놓고 동글게 세운 뒤 양산을 가운데 세워놓고 중앙에서 서서 말하였다. “이 양산이 쓰러지는 방향에 서 있는 왕자가 나의 뒤를 이을 것이다.”라고 말한 뒤 막내를 향하여 살짝 힘을 주고 밀어서 양산을 향하게 하였다. 왕의 뜻대로 막내왕자가 왕위를 자연스럽게 계승하게 되었으며 그에게는 ‘양산이 선택한 사람’, ‘왕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의 ‘티로민로’ 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티로민로 왕은 훗날 그 자리에 불탑을 조성하여 부왕에 대한 그리움과 효성을 표현한 것이 오늘날 티로민로불탑 <사진3>인 것이다.

이 탑은 기단은 정사각형으로 하층 한 변의 길이가 43m이며, 탑의 최고 높이는 46m나 되는 대형의 불탑이다. 탑의 내부는 예불을



쉐지곤은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석가모니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봉안하기 위하여 조성된 불탑이다.



티로민로왕이 불탑을 조성하여 부왕에 대한 그리움과 효성을 표현한 것이 오늘날 티로민로불탑이다.

모실 수 있는 법당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방불을 모시고 있다.

#### 3) 응아-코다웅(Nga-Kywe-Nadaung)불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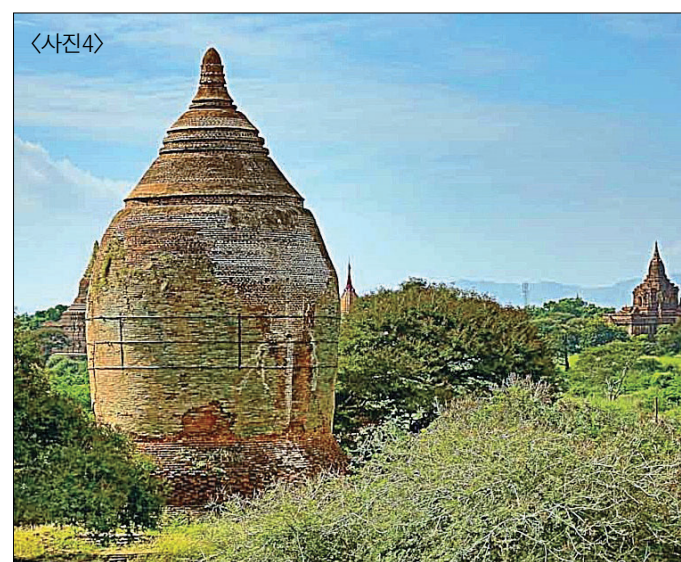
바간의 수 많은 불탑 중에 마치 우리나라의 석종형 승탑을 연상케 하는 것이 응아-코다웅불탑 <사진4>이다. 이 탑의 명칭은 ‘응아-코의 귀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응아-코는 힘이 센 바간의 전설적인 장사였다.

벽돌을 재료로 하여 조성된 전탑으로 상부는 지진으로 붕괴된 것을 최근에 복원하였으며, 1975년 대지진으로 탑신에 균열이 발생하여 쇠줄로 둘러 지탱하고 있어 참배객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불탑이다.

#### 4) 아난다(Ananda)불탑

황금색으로 빛나는 아난다불탑(사진5)은 바간에서 뿐만 아니라 미얀마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신앙의 성지로 유명하다.

전설에 의하면, 키안시타(Kyanzitta)왕(1084-1113)의 궁전에 8명의 수행자가 방문하였다. 그들은 수미산위의 간다마나(Gandhamadana)에서 온 수행자들이었다. 그 곳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성불은 하였지만 실법을 하지 못하는 벽지불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을 기다리는 곳이다. 불심이 너무나도 돈독했던 왕은 그들을 위하여 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사원을 지어주고 3개월 동안 음식을 공양하였다. 어느 날 키안시타왕은 그들에게 간다마나에 있는 ‘난다물라’ 동굴을 구경하고 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들은 왕에게 난다물라 동굴을 짓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왕이 그 방법대로 조성한 것이 ‘난다’라는 불탑이었다. 18세기 이전에는 난다라고 불렸지만 오늘날에는 ‘아난다’ 불탑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석종형 승탑을 연상케 하는 것이 응아-코다웅불탑이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아난다불탑은 바간에서 뿐만 아니라 미얀마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신앙의 성지로 유명하다.

며,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 다문제일 아난다존자와는 관련이 없는 명칭인 것이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불탑을 건립한 왕은 조성방법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8명의 수행자들을 모두 살해하였다는 비극적인 전설도 전하고 있다.

이 불탑은 한 변의 길이가 53m나 되는 정사각형의 기단 구조이지만 각 기단 중앙에 길이가 18m나 되는 출입구의 통로가 있어 위에서 보면 ‘아(亞)’ 자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탑의 총 높이는 53m로 내부에는 동쪽 구나함모니불, 서쪽 석가모니불, 남쪽 가섭불, 북쪽 구루손불의 과거 4불을 모시고 있다. 이 불상들은 높이가 약 9.5m로 모두가 입불상으로 구루손불과 가섭불은 탑을 조성할 당시에 함께 봉안한 목조불에 금을 칠한 것으로 설법인의 수인을 취하고 있다. 구나함모니불과 석가모니불은 화재로 소실된 것을 콘바웅 왕조 때 다시 조성하여 봉안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구나함불의 수인이다. 오른손 엄지와 중지 사이에 알약을 상징하는 구슬을 쥐고 있어 다른 불상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수인을 하고 있다.

이 불탑의 조형적 특징 중 하나는 탑신에 수많은 감실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 감실 안에는 많은 불상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과 생애를 표현한 조각상들이 들어 있다. 부처님의 생애만을 표현하는데 80개의 감실을 활용할 정도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 교화적인 면은 물론이고 예술적인 가치를 말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 호에는 바간의 불탑 중 대표라 할 수 있는 쉐산도 불탑을 위시하여 바간에 있는 짜이티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글·우인보

##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에서 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세계 어느 불교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불법의 정수 부처님의 위대한 실체, 인간 영혼체의 비밀, 무아론의 바른 이해, 불보살이 되는 수행법을 영산불교대학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 영산불교대학에서는 다양한 과목과 체계적 교과과정, 우수한 강사진을 통해 깊고 방대한 부처님 법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수준 높은 불자 양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대학 입학학을 통해 교학과 신심, 그리고 수행으로 이어지는 불자님들의 신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 입학처 및 연락처

대전분원 : 042)525-5325, 042)525-5345

춘천분사 : 033)243-1787  
고성분원 : 033)681-5515

제주도 제2본산 : 064)783-5355  
서울분원 : 02)453-5953

부산분원 : 051)554-5150  
대구분원 : 053)654-5557

#### 2014년도 영산불교대학 5기 수강생 모집 안내

- 모집인원 : 1·2·3·4학년 각반 150명 선착순 모집
- 입학자격 : 제한없음. 처음 입학하시는 분은 1학년만 입학가능.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순서로 매년 승반
- 수업일정 : 2014년 5월 24일 ~ 2014년 11월 30일 월 2회 - 격주 토요일 (4시간 강의)
- 입학일시 : 2014년 5월 24일 10시
- 교육장소 : 현지사 대전분원 -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1392
- 교육과목

1학년	부처님의 생애, 신불교사상, 칭명염불수행법, 금강경사경, 불교예절, 찬불가, 특강
2학년	지장경, 천수경, 반야사상, 정토학, 신불교학개론, 찬불가, 특강
3학년	법화경, 아함경, 열반경, 금강경, 세계종교비교 I, 특강
4학년	보현사상, 문수사상, 신불교학과 철학, 세계종교비교 II, 특강